

공룡도 하나님의 창조물? 🐲

공룡은 브라키오사우루스(Brachiosaurus)라는 대형 초식공룡처럼 길이가 25m, 체중이 60톤 체구가 큰 것이 있는가 하면 콤프소그 나투스(compsognathus)는 코끝에서 꼬리 끝까지 1m가 넘지 않는 매우 작은 것도 있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네 발로 걸어 다닌 것도 있고, 육식성이 있는가 하면 초식성도 있습니다.

공룡은 무척 다양한 종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여러 종의 공룡들이 발견되는 것을 진화론자들은 중생대로 설명하지만 그 근거는 라이엘의 동일과정설과 지질주상도에 기인하기에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룡의 해석과 연대측정방법, 그리고 진화라는 잣대를 제외한다면 여러 종의 공룡이 존재했었다는 것과 많은 연구의 결과들, 즉 많은 화석에 대한 규명 노력의 결과는 가히 방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인간과 한 시대였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한 내용들과 연관시켜서 참으로 성경도 6천년의연대속에서 공룡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룡이라고 하는 동물은 일반적으로 파충류라고만 생각하지만 포유류인 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미국 창조과학회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홍수 이전에는 모두 초식을 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즉 날카롭고 커다란 송곳이도 크고 딱딱한 열매를 깨어서 먹는데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홍수이후 방주에 남았던 공룡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이후 육식을 하였던 공룡들은 홍수 이후 더욱 난폭해지고 육식공룡과 초식공룡으로 분명히 구분되어지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룡은 왜 사라졌을까요?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공룡이 태어나고 사라진 과정을 살펴보면 멸종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진화론에 의하면 태초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단세포생물이 생기고 이로부터 파충류 공룡까지 진화하는데 45억년이 걸렸고 지금으로부터 6500만년 전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룡이 멸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이론이 운석충돌설입니다. 이 이론도 '다른 동물은 왜 멸종하지 않았을까?' 란 의문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창조론에 의하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생물이 6일 동안 창조되었고 창세기 6장부터 나타난 노아 할아버지 시대에 홍수 때문에 방주에 타지 않았던 모든 공룡이 멸종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의 대기층을 비교해 보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두꺼운 구름층 (궁창)이 물로 변해서 비가 되어 지표면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홍수이후에는

지구를 둘러싼 대기층이 얇아졌죠. 홍수 이전에는 구름층이 두터워 온실효과를 나타내 지구의 기온이 따뜻한 아열대성 기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을 것으로 창조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홍수이후에는 대기층이 얇아져 4계절이 뚜렷해지고,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이 쉽게 지구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외선은 동물의 노화를 촉진시켜 빨리 늙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수명을 조사해 보면 홍수이후 급격히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계절의 급격한 변화, 겨울에 음식장만, 자외선 노출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수명의 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완전한 멸종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욥기 서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바다나 육지에서도 홍수이후에 공룡이 살았다고 묘사하므로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궁금해?궁금해!」, 한국창조과학회 제공